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06월)

일시		2024.06.27.(목), 오후 12시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위원	강문식 위원장, 박병희 위원, 박성주 위원, 조애숙 위원 나민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회사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보도센터장		

위원장

2024년 6월 여수MBC 시청자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기상이변이 참 많더라고요. 이 지역에도 보게 되면 때 이른 무더위가 오고 또 남부지역은 벌써 장마권에 들어와 있고 당분간 굳은 날씨가 이어질 거라 하는데 모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23명이나 숨진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 여러분들 다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폭발 관련한 현상을 처음 알았고 새로운 기술 뒤에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규모 중화학 산업체가 밀집한 우리 지역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과 이에 대한 언론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4년 6월 여수MBC 시청자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해마다 뉴스 매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내에서 MBC가 가장 좋은 신뢰로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널리즘, 뉴스라는 게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100% 신뢰라는 게 있기가 어렵고 충분한 저널리즘이라는 게 성립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고, 상대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뢰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좋은 뉴스 그다음에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센터장

6월 추진 업무, 7월 예정,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 반영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주요 추진업무는 정규 프로그램 및 특집프로그램 제작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집 프로그램으로는 6월 13일 날 방송했던 고흥 관광특집 '고흥의 여름 편'을 제작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수 섬 특집은 거문도 백도편 프리젠티인 브레이브걸스 유나가 직접 와서 같이 일주일 정도 거문도 백도로 돌아보면서 섬 살이 촬영을 2차적으로 마쳤고 선죽도 초도편도 계속해서 제작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도시 순천 특집 부분은 계속해서 취재 중에 있습니다. 라디오 특집으로 지역 난임 부부 프로젝트는 취재 및 인터뷰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자 인터뷰는 끝마친 상태고, 앞으로는 전문가, 의료진들의 인터뷰와 정부의 지원 방침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출신 방송인이자 여행원 레오란타가 출연해서 우리 섬 지역을 돌아보는 콘셉트인 섬

마을 여행사 준비 끝에 6부작 중 첫 번째 편 금오도편을 제작을 해서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날 오전 시간에도 한 번 더 앙코르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에는 안도, 그다음 8월부터 11월까지 연도, 사도, 낭도, 하화도, 개도 편으로 쭉 순차적으로 제작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크클라쓰 6월에는 가평 크루즈, 베고니아 새정원 각각 1편씩 2편을 제작해 색다른 모습의 토크클라쓰를 선보이겠습니다.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는 9월 본선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3개 시 문화예술팀장, 주무관들과 제작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7월에도 계속해서 특집 프로그램들 지금 기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차질 없이 그 제작하고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및 반영부분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천대 의대 유치 관련 등 서부 갈등 해결 방안 및 지역 여론 반영 주문하셨는데요. 라디오 전망대에서 날짜별로 해서 꾸준히 지금 코너별로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1박 2일 여행코스 등 관광 정보 콘텐츠를 좀 다양화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섬마을 여행사 6부작 시리즈 그다음에 지난달에 있었던 여수 관광 특집 이번 달에 있었던 고흥 관광특집 등 앞으로도 관련 기획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는 고흥 드론쇼 하이라이트를 매주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에 좀 충실하게 정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및 사회공헌활동 적극적 발굴 및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 꾸준히 많원사랑 캠페인을 캠페인 형식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V '어바웃 우리동네'나 라디오 '칭찬합시다.' '민원 해결사' 등에서 이런 아이템들을 꾸준히 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 특집에 섬마을 섬사람들과 삶 섬사람들의 삶과 자연 등 재미 있고 유익하게 제작할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 제작진한테 잘 전달해서 지금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고 녹일 수 있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도시 순천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이거는 특집제작팀이 현재 취재 구성 방향성 등을 잘 설정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교육 등의 기획 프로그램들도 뭐 기획하고 제작해 달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건 아니라고 보이며, 추후 프로그램 기획 및 아이템 제작에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들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데 노력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센터장

7월 1일이 민선 8기 2년 되는 시점입니다. 반환점에 맞춰서 자치단체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오늘 하고 내일 이틀간 보도할 예정입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 소망,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 등 계속해서 이번달에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천 K-디즈니 프로젝트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취재 했습니다. 섬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식 취재를 했고, 광양의 섬진강변 개발이 인근 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관광 콘텐츠 중심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고흥에 우주항공클러스터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 우주항공클러스터 맞춰서 특화캠퍼스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라는 동향 뉴스도 제작을 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박람회, 전남 드래곤즈 상승세 등 다양한 소재를 취재해서 방송했습니다.

지금 미래교육 관련해서 '미래교육 지역의 길이 되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맞춰서 방송하기 위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이제 아시다시피 장마가 시작되고 있어서 장마와 무더위, 태풍 동향에 대해서 취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산단 직원 유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기획으로 취재 중입니다. 조금 더 보강 취재를 해 이것과 맞춰 지역 시군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추가로 취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항일운동, 반독재 투쟁을 하셨던 고흥 출신 서민호 선생 특집 제작 준비중입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내용관련해서 K-디즈니, 애니메이션 도시 심층 취재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미래의 도시 청사진, 순천시에서 벤치마킹을 생각하고 있는 프랑스 안시라는 지역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있었는데, 지역민의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사업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입니다. 6월 13일 날 성진 스님하고 하성중 신부님 두 분을 모시고 '마음 챙김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 250명 이상이 참석을 하셔서 성황리에 아카데미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올해 2024년 정채봉 문학상도 시작을 했고 7월 12일부터 사흘간 예울마루에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여름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k-pop 프로, 야간에 하는 나이트 런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들로 기획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적으로 저희도 입찰에 참여해서 행사를 좀 준비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다양한 행사들 또 여름행사까지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좀 우리 지역에 연극, 대형공연 등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될 수 있게끔 후원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MBC가 역할을 좀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전반적인 방송 실천 및 기획과 여러분들의 시 청취 경험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 의견을 들겠습니다.

박병희 위원

월세 사기 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잘 봤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월세를 신탁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지만 시행사와 월세 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좀 있으며,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사하고 신탁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설명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만 더 심층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지방재정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매년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민선8시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재정분석 자료도 같이 보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성주 위원

지난 회의때 말씀드린 라디오 뉴스 간 소음 문제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MBC에서 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나 캠페인 등이 여수MBC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배너 등을 통해서 노출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월달이면 MBC 청소년봉사상을 시상하는데 코로나 시기 이후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줄었어요. 청소년 봉사 독려 및 봉사상 홍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언론에 좀 노출을 시켜서 아이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여수산단 기업 사택을 재건축해 일부는 사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필요성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일반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애숙 위원

우리가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라고 해서 정부, 지자체, 정부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었는데 해가 지나면서 적정온도 유지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뤄주면 어쩐가 싶어서 제안해봅니다.

나민수 위원

수소 클러스터, 저탄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산업이 좀 더 육성이 돼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튬전지 공장 화재사고 관련해서 여수 산단 내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고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공장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회사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이 부분 관련해서 취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갈등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도 지금 의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이 되고 순천 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자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MBC경남에서 '어른 김장하'를 다큐로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 지역에 좀 어른을 찾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전국 상황인데 지역 여수, 순천, 광양 상가들이 거의 폐허가 되어 가고 있고, 도시 미관을 굉장히 망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취재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보도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라디오 부분에서 이 라디오 전망대 품격있는 토론이 라디오 프로로만 두기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품격있는 토론을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에서 지방 시대 지방소멸에 대한 전략수립을 위한 전국 지자체 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있었다라는 보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토론 등 후속 취재 보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기후 위기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이 좀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 오
히려 기후 위기로 극복을 위한 노력이 삶의 풍경을 풍성하게 바꿀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러한 방향으로 프로그램과 뉴스를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는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 라고 알리는 것과 달리 이것을 대처하는 삶의 풍경이 오
히려 풍요로워지고 있다. 더 사람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이런 걸 좀 다뤄보면 어떨
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애니메이션 도시 순천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부분 관련해
서 제가 마을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듣게된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들 이 부분을 애니메이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재
의 마을 사람들의 삶의 풍경에도 연결된 이야기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면 그 지역 로
컬이 특히, 농촌이 살아나고 이것이 지역특성에 맞는 애니메이션 도시의 방향성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에서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6월 여수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